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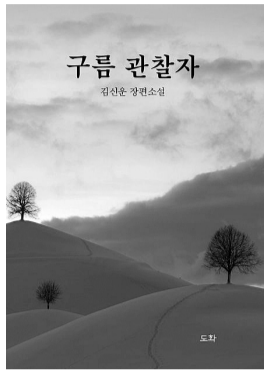
# “떠도는 구름에 여든 인생 투영했죠”

하순출신 김신운 작가  
7번째 장편 ‘구름 관찰자’ 펴내  
소년이 작가되는 15년 과정 담아  
인간에 대한 성찰 등 잔잔한 여운



최근 일곱번째 장편소설 '구름 관찰자'를 펴낸 김신운 작가. <김신운 작가 제공>

“하늘 위에 떠가는 구름은 정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론 삶을 이끌어가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김신운 소설가는 최근 펴낸 일곱 번째 장편 ‘구름 관찰자’(도화)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작품은 ‘여든 살에 그린 나의 자화상’이라고 부연했다.

‘홀연대기’, ‘대필 작가’ 등 소설로 독자들에 게 알려진 하순 출신 김신운 작가. 72년 광주일보 전신 옛 전남일보 신춘문예와 7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나온 그는 50년이 넘는 창작 활동을 해왔다.

그에 따르면 이번 작품은 일종의 성장소설이자 자전소설이다. 주인공에 작가의 일부 모습이 투영됐다는 얘기가.

인터뷰에 앞서 작가는 “이번 소설로 얼마 전 한국문인협회가 주는 한국문학 100년상을 수상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소설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오래된 주제였다”고 말했다.

작가의 표정에는 오랜 창작에 대한 피로가 묻어났다. 올해로 여든에 접어든 만큼 장편을 쓰기 위해 만만찮은 에너지를 소진했을 거라는 느낌이 전해졌다. “작품은 문학 소년이 작가가 되기까지의 15년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주인공 명준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군복무, 대학 재학 중에도 문학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죠.”

명준은 신학교에 가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부모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고민하게 된다. 또한 왜곡된 예술계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점차 작가가 되고자 하는 결심을 하

게 된다. “소설의 주인공을 구름 관찰자로 명명한 것은 세계관과 문학성을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구름을 알려준 이는 윤서희라는 여성입니다. 구름은 주인공에게 문학을 향해 나아가는 강렬한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소설은 장편과 단편의 장점을 골고루 취하고 있다. 섬세하면서도 정교한 이야기와 구조의 탄탄함을 갖추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연륜이 느껴지는 관조적 시선이 작품 곳곳에 드리워져 있어 지적인 분위기를 선사한다.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성찰 그리고 주인공이 왜 문학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형상화 등은 잔잔한 여운을 준다.

그는 “젊은 시절의 방황과 편력의 이야기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문학소년 시절부터 나는 그것을 한 편의 성장소설로 쓰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 여겨지거 기웃거리며 매 때 돌아다니다가 좋은 시절을 다 허송해버리고 말았다”며 “여든이 되어서야 이 작품을 발표하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혔다.

비로소 ‘여든 살에 그린 나의 자화상’이라는 앞서의 표현이 이해가 됐다. 팔손의 노 작가의 “아직

도 젊은 시절의 방황과 편력의 이야기에 사로잡힌 이야기”라는 말이 문학에 대한 식지 않는 열정으로 다가왔다.

“작품을 세상에 보내고 나니 조금 허전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작가는 두 가지 감정을 교차한다고 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장편을 쓸 수 있다는 대견함과 한편으론 앞으로 더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교차한다는 것이다.

“향후 AI(인공지능)가 많은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인간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자못 걱정이 됩니다. 만약 소설쓰기마저 AI가 대체한다면 아마도 나는 조금의 시스템으로 작품을 쓰는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작가에게선 여전히 글쓰기에 대한 열망이 느껴진다. 평생 소설을 화두로 삼고 살아왔으면서 어떻게 창작을 할 것인지 걱정을 하는 모습에서 천상 소설가라는 느낌이 든다. 다음의 작품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된다.

한편 김신운 작가는 장편 ‘땅굴에서 며칠을’, ‘정동조서’, ‘소설가 구보 씨의 초대’와 소설선집 ‘귀향’을 발표했다. 광주문학상(1984년), 한국소설작가상(2014년)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소안항일운동 학생 백일장 대상 이세은 양

완도 소안항일운동기념사업회 수상자 89명 발표

완도 소안항일운동 기념 전국 학생 문예백일장 대회에서 이세은 양(소안 중 1학년, 그림)이 대상(국가보훈부장관상)에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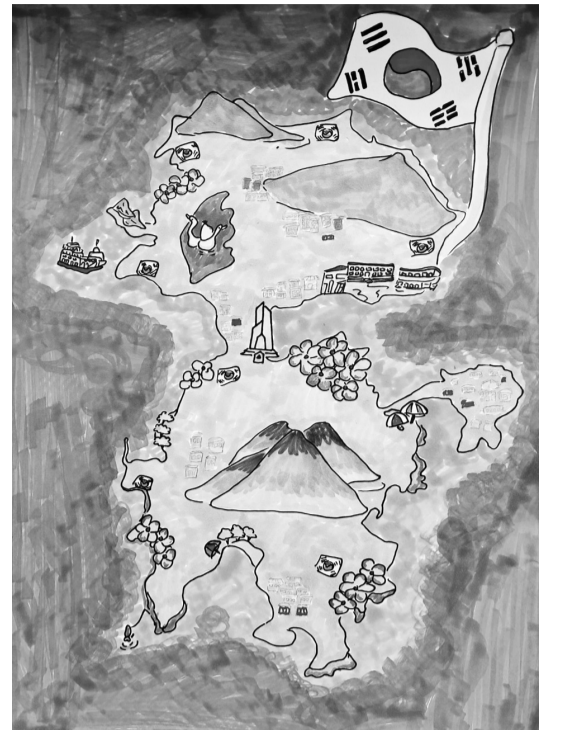
소안항일운동기념사업회는 최근 학생문예백일장 심사회를 갖고 대상 이세은 양을 비롯해 89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백일장은 소안항일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 15일 소안도 항일운동기념공원과 소안항조성터에서 개최했다. 250여명의 학생들과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32회 소안항일운동기념 추모제, 제12회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의거 114주년 재현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이번 전국문예 백일장은 모두 세 분야로 실시됐다. 글쓰기(운문과 산문) ‘영원하라 항일의 섬 소안’, 그리고 ‘소안도의 나라 사랑 정신’, 후후감 ‘노래를 품은 섬 소안도’를 읽고로 나눠 진행됐다.

광주지방보훈청장상에는 이주원(소안초 4-1, 운문), 전라남도지사상에 박주원(목포제일중 1-6, 산문), 전라남도교육감상에 박선율(노화중앙초 2-1, 후후감), 전라남도의회 의장상에 박선우(광주교육대 목포부설초 6-1, 운문) 등 모두 89명의 작품들이 수상했다.

한편 완도 소안도는 1909년부터 13년 간에 걸



이세은 양 대상 작품

친 토지계정 사건 승리 기념으로 1923년 사립소안 학교를 설립해 독립운동을 즐기게 전개한 ‘항일의 섬’이다. 당시 소안도 주민 6000여 명 중 800 명이 ‘불령선인’으로 감시를 받았고, 송내도 송기호 형제 등 22명이 국가서훈을 받아 면 단위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섬이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국악 전공 청소년 협연자 모집입니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24~8월6일 접수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제135회 정기연주회 ‘청소년 협연의 밤’ 무대에 오를 청소년 협연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영상오디션으로 진행되며 ‘현악’, ‘판소리’, ‘가야금병창’, ‘타악’, ‘관악’의 다섯 분야 동영상을 접수 받는다.(19세부터 26세의 국악 전공자가 지원 가능)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 공식돼 있는 지정곡을 영상녹화해 응시원서와 함께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지정곡은 ‘대바람소리’와 ‘린포제’(대

금), ‘감상유월’과 ‘섬화’(거문고), ‘황의노래’와 ‘추상’(해금), ‘풍향’(생황), ‘어서출두’(판소리), ‘제비노정기’(가야금병창) 등이다. 이외 악기들은 홈페이지 참조.

한편 동영상은 응시자의 솔로연주 시작점부터 카메라(악곡이나 악장이 끝나기 전 독주자가 선보이는 기교적 대목)를 필수로 포함해야만 한다.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6일 오후 6시까지 접수 예정. 문의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무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무등산 난개발 막기’ 시민들 머리 맞댄다

프로젝트팀 ‘1995Hz’ 22일 무등예찬 워크숍

광주의 대표 지역문화자원 ‘무등산’의 난개발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머리를 맞댄다.

프로젝트팀 ‘1995Hz’는 ‘무등예찬 워크숍’을 오는 22일 오후 2시 미로책방(미로센터 2층)에서 진행한다. 이번 주제는 ‘무등산 동식물과 살아가기: 인간 형상의 허물벗기’.

무등산과 자연물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는 취치이며,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문화학과 박사과정에서 재학 중 우현정이 발제를 한다.

우씨는 ‘무등산의 동식물은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털조장나무’, ‘장구법나무’

등의 자연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무등산 개발 담론을 비판적으로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우씨는 그동안 영화비평지 ‘썬’, 전남문화재단의 에세이 ‘타오르는 민중의 초상’ 등의 지면에 문화예술에 관한 글을 발표해 왔다. 이번 발제에서 무등산에 얽힌 기후위기 문제와 자연재해, 동물권 등의 내용을 다룰 계획이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무등산 동식물과의 공생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오는 10월에도 ‘무등예찬 두 번째 이야기, 산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 전을 진행할 예정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

# ‘젊은평론가상’에 서울과기대 최진석 교수

한국문학평론가협회(회장 오형엽 고려대 교수)는 제24회 ‘젊은평론가상’ 수상자로 최진석(사신) 서울과기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상작은 ‘탈인간을 위한 사-자들-거대한 연결의 시작 조건’이다.

최 교수는 2015년 ‘문학동네’ 평론 부문에 당선되며 평론가 활동을 시작해 비평과 문화 연구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글을 쓰고 있다. 계간지 ‘청색종이’, ‘문화/과학’ 편집위원과 ‘뉴라디컬리뷰’의 편집인으로도 활동 중이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서울 종로구 금보성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Seogwangju Nonghyup (서광주농협).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building and various services offered: NH K Bank, NH Card, Riche House (New), and Nonghyup's commitment to customers and the community. Contact information and branch locations are provided at the bottom.